

팬데믹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2천년전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2월 19일 (토) 제 185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발행인 칼럼 : 성탄절 특집

그대에게도 임마누엘이신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는 그렇게 떠나셨다. 홀로? 아니다. 지난 12월 13일 뉴저지 Franklin Memorial Park에서 은사(恩師)이신 고(故) 김인환 전(前) 총신대 총장님의 유골(遺骨) 하관예배가 있었다. 예배 가운데 첫 음을 집례하신 목사님이 다소 높게 잡긴 하셨으나 '하늘가는 밝은 길이' 찬송이 우렁차게 메모리얼 파크에 울려 퍼졌다.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렇다 은사님은 슬픈 일도 많이 보셨고 늘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려움을 안겨주는 자들을 품는 모습은 압권(壓卷)이었다. 자신도 육을 먹을지

언정 비난 받는 자들의 걸을 떠나지 않으셨다. 상한자와 약한 자와 함께하셨던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을 은사님에게서 뵈 수 있었다. 지난 40년 가까이 한결 같으셨다. 그는 그렇게 안기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날 예배의 찬송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아니다. 그에게는 아니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마약에 빠졌다가 계속 살 돈이 없어 아예 마약 딜러가 되어 끝내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였다. "God Is Bad. All the Time!" 자기 인생의 방해꾼. 항상 나쁜 것만 골라주는 하나님. 그러던 그가 만났다. 성탄의 예수님을. 그는 이제 알았다. 성탄의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임을. 그는 굳게 믿었다.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을. 그는 어디서나 큰소리로 외치고 다닌다고 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얼마 전 다른 도시에서 흡리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흡리스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 게으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맨해튼의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화려하다. 2021년 성탄을 맞는 맨해튼은 팬데믹 이전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 록펠러센터 앞의 대형 성탄 트리(tree), 건물마다 캐롤과 함께 펼쳐 보이는 형형색색의 성탄 관련 그림들이 눈을 휘둥거리게 한다. 성탄을 맞아 거리에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환호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유독 저 멀리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분의 자리는 적어도 이 거리에는 없는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라는 거니?" 물으시는 듯하다. 지난주 찬양대의 찬양가사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맨해튼의 거리에서 들려져야 할 것 같다. '구세주

문밖에 계시는데 너는 왜 지체하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는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문밖에서 기다리며 닫힌 문 열릴 때 기다리네/ 주님은 기다리리네' "성탄의 예수님께, 맨해튼아 문을 열라!"

요즘 사라진 풍경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가정방문이 있었다. 팬데믹 이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들의 가정방문은 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학생과 부모가 있고 그 가정 안에 성도가 있음에도 문을 열어 잠고 선생님께 목회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모습이었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서글픔도 첫 성탄절만큼은 아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말했다. "빈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 "빈방이 없어요"는 유행가처럼 성도들에게 불린다. 그럴 수 없다. "성탄의 예수님께, 성도들이 문을 열라!"

그대에게 2021년도의 성탄절이 다가왔다.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은 있으신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그대에게도 임마누엘이신가?

성탄 속시

눈물이 꽃씨 되는 밤



석정희(시인)

소리 없이 천장에서 내리는 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색 트리에 장식된 탄일종

아기 예수님 나심으로 찢겨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
눈물방울 꽃씨로 꽃 피우시네

우주공간을 가득 채워
구주 아기 예수님 오신 날

그 꽃들 종소리 맞춰 춤추는 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기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늘 채우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반기세

이 기쁨 너와 나 누구나 함께하는
은 누리에 기쁨으로 즐기는 무리들

조그만 그림카드 앞에 두고 앉아
어두워져만 가는 혼탁한 세상

종소리 들리는 골목골목을 돌아
넓은 들판으로 열리는 길에 들어
눈 내리는 아침 찬송으로 이끄시네

나 몰라라 했던 인색한 마음
외마디 울음으로 무릎 꿇으면
별만큼이나 많은 잘못들

[필자 약력]
Skokie Creative Writer Association 영시 등단.
'장조문학' 시 등단, 대한민국문학대상 수상.
한국농촌문학 특별대상, 세계시인대회 고려문학 대상.
독도문화제 문학대상, 글로벌최강문학영인대상.
대한민국예술문학세계대상, 유관순 문학대상 외 다수
시집 "문 앞에서" "나 그리고 너" "강" "The River"(영문) "엄마 되어 엄마에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등이 있음.



시론
이동진 목사



2면
성탄절 특집설교
양수철 목사



3면
4면
성탄절 전통,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kbcc.org | cjb@jkbcc.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2년 4월 25일(월) - 4월 3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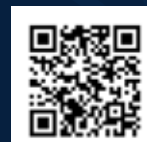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5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LDS(Laity Community Church) 국제제자훈련원



시론

교회의 라비스망(ravissement)은 어디로 갔는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Pantone)이 지난 주에 '2022년 올해의 색상'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자료에 있던 색상중에서 선정하던 '올해의 색'을 처음으로 직접 만든 색으로 선정한 팬톤의 새로 창조된 색(color)의 이름은 베리페리(Veri Peri)이다.

Red나 blue 또는 Yellow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 팬톤이 새롭게 만든 색인 베리페리색(色)은 평온한 느낌의 파란색에 에너지 넘치는 빨간색을 섞어 마치 보랏빛이 감도는 제비꽃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색상을 만들어 선정하는데 팬톤의 로리 프레스먼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이 파도를 돌파하기(break through)위해 우리는 용기 있는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색 선정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전통적 blue의 항구성과 red가 주는 에너지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색이 보여주듯이 불안한 시대에 무언가 희망의 닦을 내려주기 위한 작업을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세상은 이처럼 흐름에 민감하고, 사람들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분야의 연구소들은 물론이지만 이윤추구의 기업들도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물결을 어떻게 타야 할지, 어떤 물길을 만나고, 어떻게 위기를 넘어설 것인지 연구한다.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시도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 이러한 시도에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가진 가장 파워풀한 힘은 '복음'이라는 능력이다. 이 복음 안에는 우주의 창조로부터 지구 최후의 날까지 존재할 생명의 신비가 다 들어있으며, 과거의 역사 뿐 아니라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와 영원이라는 초월적 시간도 담겨져 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그 복음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오늘의 교회'들은 또 이렇게 팬더믹 두 번째 해를 넘어가고 있다.

색(color)의 표준을 만들고 분류하는 회사는 인류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새로운 색을 그야말로 '창조'해내는데, '오늘의 교회'는 기쁨과 환락을 나누는 인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아쉽게도 마침 오늘 한국뉴스에서는 '여성 교인과 불륜 즐기기' 교회자금 1600만원 빼돌린 60대 목사라는 민감한 제목의 보도가 전하고 있다.

프랑스 미학자 에티엔 수리오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라비스망(ravissement)'을 꼽았는데, '강탈하다, 약탈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이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몰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세상은 이 라비스망이 인류의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교회를 비롯하고 있는 것만 같다. 영광과 전능과 위엄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에 완전몰입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서있는 것 같은 교회를 향해.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또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라비스망 앞에서 교회의 라비스망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

팬더믹의 두 번째 겨울이 넘어가고 있다. 색채연구소는 색을 창조(?)했다면서 베리페리색을 선보이고 있는데, 창조의 근원인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내놓으며 위로한다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창조'를 색채연구소에게 넘겨준 교회, 30배, 60배, 100배라는 성장의 비밀을 갖고 있음에도 무력하게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로 서있는 별거벗긴 교회의 솔직한 현주소. 여전히 성탄의 종은 또 울려오는데 인류에게 유일한 메시지인 신비한 사랑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광야를 지나는 약속의 백성들처럼 팬더믹의 광야를 지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는 복음의 능력'에 라비스망되어 새롭게 태어나 메시아탄생의 순전한 기쁨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크리스마스

CT, 라이프웨이 설문 조사 결과 해설 게재

대부분의 미국인은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축하하는 절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왜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크리스천티튜데이(CT)는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 설문 결과를 해석한다

(Most Americans, and Many Christians, Don't Believe the Son of God Existed Before the Manger: There's widespread agreement around Christmas as a historical event, but people are confused about the Trinity, per a recent survey).

라이프 리서치의 올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 가까이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절반 정도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이야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언제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다른 역사적 인물

2000년 이상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49%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소수(9%)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18%는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의 미국인(80%)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에 한 분의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것과 같은 예언은 메시아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임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칭

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15%에 불과했다.

기독교인 중 한 달에 4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진술을 가장 많이 믿는다. 98%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95%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63%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다는 데 동의한다.

한편 미국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기가 무엇인지 항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서 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러나 강림 이유 잘 몰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처럼 예수님만 평가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당신이 그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해야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믿지만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그가 출생 이전에 존재하셨다고 믿습니다.

올해 발표된 동 리서치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9명 이상(91%)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축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사건이다. 10명 중 7명 이상(72%)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10%는 동의하지 않으며 10%는 확신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은 예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5명 중 2명(41%)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인 3명 중 1명(32%)이 동의하지 않으며 28%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맥코넬은 "2020년 신학 현황연구(The 2020 State of Theology Study)에 따르면 미국인의 72%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 안

호는 삼위일체를 반영하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이해해 지금 육신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과 정체성을 둘러싼 어떤 진술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일부 사람들은 조직화된 종교와의 명백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다. 거의 절반(48%)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3분의 1(33%)은 예수가 실제로 2000년 이상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예수

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일곱 가지 선택(네는 맞고 세 가지는 옳지 않음)이 주어졌을 때,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소수의 다수를 얻었다.

미국인들은 틀린 답보다 정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절반(51%)은 성경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

(11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Services include various med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Los Angeles and New York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featuring a 2022 winter Zoom lecture series with topics on theology and ministry.

저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헬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일 수는 없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우는 것은 또 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독일어로 Historie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감각 기관을 통해 경험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식, 경험적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History라고 하는데, 그 말은 His+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운행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새롭게 개혁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혁되는 그 역사의 대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정치가나 위대한 장군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데 그 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즐거운 성탄절(Merry Christmas)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첫째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1-2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 세계 패권은 아시리아 제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빼앗겼고, 고통과 흑암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종혼합정책까지 펴서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황폐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원군(援軍)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이집트 밖에 없었는데 이집트조차도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 앞에 있는 연약한 촛불과 같았습니다.



양수철 목사 (KAPC 전 총회장)

그런데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이 멸망의 위기 앞에 있는 나라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빛을 비취주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아기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흑암에 비추시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도해 선명합니다. 즉, '어둠과 빛'을 대조하시는 것이지요(창1:2vs.1:3).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있게 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의 역사가 끝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흑암(호세크)은 죄와 무지와

고통을 상징하고 빛(오르)은 하나님의 현현과 생명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진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3절).

예수님은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가? 하면 ①추수하는 농부가 얻는 즐거움보다 더 승하게 하십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때에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입니. 이스라엘은 당시 미디안이란 나라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13만5천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해방시켰습니다. 그 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는데(눅2:29), 그 말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시므온도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압제로부터, 죄의 구속으로부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눅2:10).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 연자맷돌은 돌지 않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근시안적(近視眼的)으로 보지 않을 때에야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 거시적(巨視的)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중(掌中)에 의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은 파헤치고 정의와 진리는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비롯됩니다. King James Version은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불변사 '키'를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세상에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모사(요에츠)는 '조언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모사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엘 김보르)입니다. 보통 전능하다고 할 때에는 '사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김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을 보면 애처로운 청상과부인 뜻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해준 보아스를 가리켜 김보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시며 결국에는 신앙까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아비아드)입니다. 근동에서 아버지란 말은 육신의 아버지도 나타내지만 보호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임마누엘).

다섯째는, 평강의 왕(사르 샬롬)입니다. 팩스 로마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란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음가(音價), 게마트리아)는 888입니다. 6은 완전수인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숫자이고 8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남은 숫자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부활을 포함해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도 남은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성탄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므로 BC(紀元前)와 AD(紀元後)로 나뉘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흑암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뀌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다섯 가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성탄을 천사들과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라고 외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 특/집/설/교

역사의 전환점이며, 미래의 유일한 희망인 성탄

이사야서 9장 1-7절



풍년가도 있는 것이고, 농약대의 공연과 춤도 있는 것입니다. ②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탈취물을 나눌 때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연신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 밤중에 기습공격을 함으로써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감사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나 탈취물을 나눌 때보다 더 기쁜 것은 ③전쟁에서 이겨서 압제로부터 해방될 때입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노예들을 잔인하게 다룰 때 사용하는 고문 도구들

셋째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겂옷이 불에 쏘 같이 사라지리니"(5절). 군인의 신발과 피 묻은 겂옷이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겠다는 말씀은 전쟁이 아주 끝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도구들도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칼로 삼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날이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극적인 반전이지요. 삼위일체(trinity)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교부 터툴리안은

해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찌하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실까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섯 가지 이름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첫째는, 기묘자(뫼레)입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펜대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를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 3일(화) - 4일(수)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귀표 목사 사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3-4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as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 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감동의 성탄 이브의 새벽 송

나는 21살의 나이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닐 때 루터란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작은 한인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다. 장차 목회할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

히 공부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에게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만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에서 받았던 생활비가 400불이었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의 렌트비가 135불

정도로 평균 시세보다 3배 정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아파트 렌트비가 그렇게 컸던 이유는 루터란 교회의 담임목사님 선처로 그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받은 400불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렌트비 내고, 자동차 보험료 내고, 가솔린비를 쓰고 나면 30불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식생활을 해결해야 했다.

그때 당시 나는 24개가 들어 있는 한 박스에 3불99센트 하던 라면 두 박스를 샀고, 야채를 먹기 위하여 V8주스를 한 박스 샀다. 그리고 기름진 멕시코 음식인 부리토를 사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으로 식단을 짜고, 그리고 목사님이 심방을 데리고 가면 아주 많이 먹는다

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일 년 이상 하다 보니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에 먹을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항상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잠 솔픈 마음이 들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 나는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야기 상대도 없고 TV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날 밤 외로이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깨어 가만히 노랫소리를 들으니 성탄 찬송을 합창으로 부르는 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밖을 보았는데 루터란 교회의 미국인 찬양대원 10명 정도가 노인 아파트 정원 한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그들의 찬양을 들으며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들었던 찬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들었던 외롭게 양들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찬송을 불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날의 천사들

의 메시지와 찬송은 더할 나위 없이 외로운 목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구세주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그 새벽 송을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를 통과하는 시기로서 우리가 새벽송은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성탄의 날에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힘차게 찬송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도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을 믿는 바이다.

david2lord@hotmail.com

성탄절 전통, 얼마나 알고 있나요?

TGC, 알아두면 유익한 크리스마스 전통 8가지 소개

크리스마스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공유하는 경축일이자 다양하게 실천하는 관습이다.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은 8가지를 정리했다(8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Christmas Traditions).

1.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수를 집 안에 들여놓고 장식하는 전통은 1500년대 독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담과 하와의 축제’에서 공연된 연극에 등장하는 “낙원의 나무들”에서 이름을 따서 “낙원”이라고 불렀다. 에드윈(Edwin)과 제니퍼 우드럽 타이트(Jennifer Woodruff Tait)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나무에는 성찬을 상징하는 동글고 얇은 과자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독일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쿠키 장식으로 발전했다.

2. 크리스마스 조명

전설에 따르면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에 가져온 최초의 사람이자(사실이 아니다), 조명들로 장식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다(이것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루터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한겨울 밤 잠으로 걸어 가던 루터가 전나무와 그 주위에 빛나는 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됐다. 그 장엄한 광경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던 루터는 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별처럼 빛나는 긴 양초로 장식했다. 이로써 현대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

조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3. 지팡이 사랑

민간전승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지팡이 사랑은 1670년 독일에서 시작됐다. 쾰른 대성당의 한 성가대 지휘자가 예배 중에 아이들을 정숙하게 하려고 사탕을 나눠주었다. 그는 사랑 제조업자에게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랑 막대기 끝을 목자들의 지팡이처럼 구부러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인디애나의 사랑 제조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음의 여러 상징을 통합해 지팡이 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4. 크리스마스카드

상업용 크리스마스카드는 1843년 런던에서 시작됐다. 바빠서 편지 쓸 시간이 없었던 헨리 콜 경(Sir Henry Cole)은 예술가 친구에게 그림과 간단한 인사말이 있는 카드를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술가 존 켈코트 호슬리(John Callcott Horsley)는 카드 1000장을 인쇄해 런던의 펠릭스 서머리 트레

저 하우스(Felix Summerly's Treasure House)에서 1실링에 판매했다.

미국인들은 줄곧 영국에서 크리스마스카드를 수입해오다가 1875년에 “미국 크리스마스카드의 아버지” 루이스 프랑(Louis Prang)이라는 독일인 이민자가 미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크리스마스카드를 제작했다.

5. 크리스마스 양말 주머니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시다”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A Visit from St. Nicholas, 1823)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양말 주머니가 나온다. 이것은 1800년대 내내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양말 주머니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1883년 12월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는 “수년간 양말 주머니가 크리스마스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양말 주머니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경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고 말했다. 양말 주머니와는 대조적으로 “뿌리도 없고 생명이 없는 시체처럼 보이는 독일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결코 그날을 기념할 가치가 없다”라고 논평했다.

양말 주머니를 걸어 놓는 전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와 관련한 민간 설화가 있다. 산타클로스가 어떤 가난한 가족이 있

다는 것.

6. 에그노그

에그노그(eggnog)는 우유, 크림, 설탕, 거품 낸 계란에 술(브랜드, 코냑, 럼주, 셰리주, 위스키)과 때로는 계피나 육두구 같은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료다. 음식 역사가들은 이것이 중세 초기 영국의 포셋(posset,



지만 19세기에 크리스마스 노래 악보들이 출판되면서 일반 장르가 됐다.

예를 들어 1833년 영국인 변호사 윌리엄 샌디스(William Sandys)는 ‘크리스마스 캐럴: 고대와 현대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쁨을 주시네(God Rest Ye Merry, Gentlemen)”와 “저 들 밖에 한 밤중에” “천사 찬송하기를” 같은 곡들이 실려 있었다.

또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가정집을 방문해 노래하는 전통(wassailing, 한국교회의 “새벽송”)이 크리스마스에 채택돼 “캐롤링”(caroling)과 동의어가 됐다.

8. 대림절 달력

중세시대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오늘날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까지 4주간 이어지는데, 대림절 달력 대부분이 12월 1일에 시작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24일의 기간이다. 대림절 달력의 전통은 19세기 중반에 독일 개신교인들이 때문에 분필로 표시하거나 촛불을 켜 두고 크리스마스까지 날짜를 세던 관습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대림절 달력을 최초로 인쇄한 사람은 1900년대 초 독일인 게랄드 랑(Gerald Lang)이다. 랑이 어려울 때 그의 어머니는 쿠키 24개를 상자 뚜껑에 매달아두고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먹게 했다고 한다. 1908년에 랑은 이것을 자신의 대림절 달력 모델로 사용했다.

올바른 목표와 상황 점검하고 관계성 활용, 기준유지 좌절 말고 돌파 과정 인식 공유 새 변화 밑거름 활용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가족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아버지는 세 딸의 결혼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산타클로스는 굴뚝 밑으로 금화 세 닢을 던졌고, 벽난로에 말리려고 걸어둔 세 딸의 양말 속으로 떨어졌다(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산타클로스가 금으로 된 공 세 개를 주었고, 그래서 오렌지나 꿀을 넣어 주기도 한

우유가 섞인 뜨거운 맥주 같은 음료)에서 유래했다고 믿는다. 미국 식민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우유와 계란 덕분에 에그노그는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음료가 됐다.

7. 크리스마스 캐럴

14세기부터 캐럴은 대중적인 종교 노래의 한 형태로 간주됐다.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대중화되기 시작했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교회)
- 지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작고 초라해도 전심으로

교회 후임자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 주의 전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분이시다. 단 한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와 축복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모든 은혜의 연결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연관이 있더라는 것이다. 현재의 명성교회건물 지하 쪽에 가보면 교회박물관 같은 것이 있다. 오래전 한국방문 길에 잠시 둘러본 적이 있다.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 목사님이 섬기셨던 교회와 관련된 모형이었다.

젊은 시절, 흠뻑뿌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교회지붕이 헐어져 예배당 천장에서 비가 새더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아도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안타까운 눈물이 흘러나와 샘처럼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다. 빗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

는 뜻이다. 그분을 통해 우리 조국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사람구실을 하는 법인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이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할 때 새마을 노래의 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이다. 어릴 때 그 새벽종 소리(후에는 벨소리)를 듣고 일어난 기억들이 있는데, 그 새벽종 소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라고 매일 새벽에 치던 종소리이다.

한국교회는 1년365일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었으니, 모든 백성들이 아침 해 뜨기 전에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의 그 새벽 종소리가 어디에 있는가? 구미 삼미교회의 새벽종 소리였다.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예수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 민족도 매일 이른 아침 새벽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먼저 거두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나라와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아름다운 영적 토양이 잘 가꾸어져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른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시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아주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임을 확신하게 되는 부분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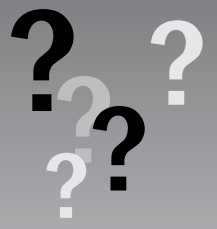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삶의 환경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영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과거에 영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국의 깃발에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몇년전 영국을 방문해보니 영적으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을 현상적으로 듣고 보았다. 한인교회 가운데 제대로 자립하는 교회가 안타깝

그렇게 교회가 비어져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그들의 실제 삶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많은 교회가 식당이나 빵집,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었

다.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박물관과 외곽지의 성곽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작다. 차도 작고 집도 작고 길도 좁다. 작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모습 때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다. 식당이라고 들어가 보면 서로 의자를 부딪쳐가며 식사를 한다. 호텔은 별이 서너 개가 된다고 해도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물도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는 데 비싸기까지 하다. 결국 이 나라가 보여줄 것은 세계 각국에서 가져다 둔 고대유물이 전시된 대영박물관과 옛날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는 성곽뿐이다. 교단의 선배 목사님은 이러한 영국이 너무 마음에 걸려 영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밤낮 기도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정말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통해 마른 뼈도 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조용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사하여 최근에 집 가까운 어느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담임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지만 교인들에게 성령충만을 매우 강조하는 목사님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데 왜 또 성령충만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성령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충만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전덕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R. A. Torrey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충만을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충만하게 도와주소시오. 왜냐하면 성령충만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 충만은 명령...모두가 계속 받아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악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충만으로 무장받아야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18에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헬라 원어를 통해 깊이 묵상해보면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명령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은 전생태에 총칼 무장 없이 맨 주먹으로 무장한 적과 싸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2)복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인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충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3)수동태로 되어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분노의 감정의 지배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4)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충만이라는 말은 계속 성령에 의해 충만되어져야함을 의미합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부자였던들 지금 빈털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 옛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힘이 있었어도 지금 몸이 허약하고 골골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개스를 일주일에만 한 번 정도씩 "fill it up"하여 계속해서 충만히 주입해야 하듯이 계속 성령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재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2

-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국 예배당 분당 바닥에 누워서 등쪽으로 그 떨어지는 흠뻑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명성교회의 은혜와 축복의 기원 혹은 원천이 되었기에 그 모형물을 전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보여도 주의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의 신앙의 철학, 사상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신 것이다.

민족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평가들이 있음을 본다. 기독교 신 문지상에서 정치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가? 를 질문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잊어버린 듯 하면 늘 새롭게 등장하는 이름이다. 요즘, 팔순의 노모는 기도하면서 자주 말씀하신다. 박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밤 먹고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딸을 감옥에서 좀 꺼내주면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함께 기도해다오" 이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그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많다

를 믿었는가? 이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박대통령이 어린 유년시절과 문경의 초등학교 교사시절에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 생활했던 이야기들은 익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여기에 유추해 볼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 재직시에도, 구미 상모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 일정부분의 건축현금을 내었던 기록도 전해져 온다. 아무튼, 다른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새벽 종소리에 일어나 잠을 깨우며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온 나라와 백성들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기도 종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맞보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코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들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중직이라면 당연히 새벽을 깨워서 교회와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했던 것이다. 하물며 조국 통일을 생각하면서 국 방방곡곡에 세우기도 했을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저들의 기도의 헌신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 몇 군데 되지를 못했다. 게다가 한인교회의 목사님들의 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워낙 어려운 환경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보니 필요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처럼 피폐해진 영국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어둠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영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안 내로 어느 빌딩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의 모습을 한 멋진 빌딩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빌딩 좌우에 간판이 따로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왼쪽에는 'Under 21'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빌딩 오른쪽에는 금주에 어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쓰인 교회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설명을 들어보니 원래는 이곳이 교회였는데 빌딩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아래 지하를 세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을 한 건물에 이층은 여전히 안내판의 내용대로 교회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지하층은 술을 먹고 춤을 추는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는 교회 안내판이, 다른 한쪽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불가하다는 뜻으로 'Under 21'이라는 간판이 세워졌던 것이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진을 찍어놓기도 했다.

이것이 영국의 영적인 실상이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 이젠 나이트클럽과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교회가 변한 것이다.

으며 세위 강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삶의 목적과 방향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보면 이곳만큼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세계 어디에도 없음을 보게 된다. 시골 어디를 가도 속속나 도로 등의 생활여건이 안전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땅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연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도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발을 했다. 남미로 가는 배들이 있었고 북미로 오는 배도 있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배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피폐하기 짝이 없게 되어 버렸다. 마약전쟁의 소문이 끊이지를 않고 북미의 선교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1984년에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LA올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꼭 보여주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 교회를 세운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

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다. 그때 저희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을 즐기치게 이야기하셨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아느냐? 그러시면 '교회를 사랑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미국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복을 주실만한 기초와 기반이 되어있으니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임을 말씀해주신 것이다.

기본기의 회복, 삶의 축복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기분이 되는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께 생각 안을 즐기게 이야기하셨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아느냐? 그러시면 '교회를 사랑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미국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복을 주실만한 기초와 기반이 되어있으니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임을 말씀해주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응원(應援)

세상이 하 수상하다 보니 정상적인 것들보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더 득세를 한다. 사람이 태어나 점점 자라다가 청년이 되고 그 뒤부터 나날이 쇠퇴해지는데 이 세상도 나날이 말세로 치달으면서 나타나는 당연하다(?) 싶은 현상이다. 이렇게 변질되어져가는 세상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라기에 소개되어 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말1:6,7)고 한탄하시면서 점점 더 후퇴해 가는 자들의 가증함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며 거부하신다. 잘못조차 부인하며 기고만강한 자들의 여겨운 행태를 보시다 못해 망령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자를 찾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양심을 주셨으나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대다수가 그 양심마저 잃어버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어찌지 못하시고 눈을 감고 귀를 닫으셔야만 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그 증거다. 21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이미 경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찔림마저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세상에 휘몰아친 것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 재앙이다. 의학·과학·우주학 등의 발전에 고무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영역까지 넘본 채 하늘을 향해 사대질을 해대며 기세가 등등했으나 그것(?)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의 기습으로 멈춰서고 말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타

를 입은 것이다. 위대 코로나는 세상을 위협한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는 의미다. 정확할 수도 막을 수도 없으니 백신으로 면역력을 키우며 적당히 버티보되 질량이 있는 위험군이나 고령자들의 희생은 여쩔 수 없다는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유일한 방법인 세상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말세의 증상이다. 망하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이 그랬다. 위협과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에게 빌거나 힘 있는 이웃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그들의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유다도 망한 이스라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따라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며 그들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당연히 유다도 망했다. 이 세상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모든 문제의 유일하신 해결자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께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11:1-5)는 말씀 때문이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그들이 아직도 천년을 하루 같이 기다리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말세로 치달고 있는 이 세상을 붙잡고 있지.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야 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택하

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을 응원한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바이러스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일 수도 있다. 죽음이 임박한 중증환자를 살려보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일 수도 있다. 정의와 공의를 되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걸고 투쟁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다. 진리의 복음을 외치며 평범한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대망하는 성도일 수도 있다. 강도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다. 그들을 응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을 응원한다. 힘껏 응원한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린다고 한다. 말세에 그럴 것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자들을 응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CA, 텍사스 낙태제한법 본떠 총기규제 추진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캘리포니아주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의 주요 조항을 본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12일 로이터통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새 규제 법안은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에겐 건당 1만 달러의 소송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는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낙태제한법은 통상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속이나 기소권을 주정부가 행사하지 않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낙태제한법에 대한 반발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어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의 낙태제한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 판결에 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 위협을 통해 파괴적인 무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여성을 위협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고소 권한을 사용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인명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이를 인정받았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어진 최종 결정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보 진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은 이를 반기고 있다.

"목회자 번아웃, 7가지 심표로 예방하라"

최근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은 목회자 38%가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목회자들은 '번아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사역 특성상 한번 시작된 번아웃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번아웃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심리적·생리적인



로 지친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목회자들의 일상상은 분주하다. 매일 새벽기도와 수요·금요일 예배, 주일예배 설교 준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수시로 교인들의 이사나 개업, 임원 심방과 장례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예배와 교회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부담은 담임목사나 부목사 모두 마찬가지다.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고서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휴가 중에도 쉴 새 없이 목사를 찾는 연락이 온다. 그래서일까. 최근엔 '혼자 쉬고 싶다'며 하소연하는 목회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럼 중 하나인 '더 베타 사마리탄(The Better Samaritan)'은 최근 레이먼드 장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교연합(AACC)' 회장의 '너무 늦기 전 목회자가 번아웃을 피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ACC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개신교 단체다.

장 목사의 노하우는 '예배를 위임하라' '강단을 다양화하라' '공동체를 분산하라' '진실을 밝히라' '본질적인 부분까지 업무를 줄이라' '절제의 영성으로 들어가라' '의숙함을 넘어 진정한 섬에 도전하라' 등이다. 과중한 업무를 과감하게 중단하고 쉬기 위해 노력해야 번아웃을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목회현장에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

목사인 장 회장은 "코로나19와 교회 안의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게 스트레스의 근본 이유인데, 쉬기 위해서도 몇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사고에 '3010억 달러 배상' 판결

미국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을 상대로 피해자 유족에게 무려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으로는 종전 기록 15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탈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엔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146km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에 달했다.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주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만취한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전세계 백신의무화 갈등, 점차 격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공중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맞서 '부작용 우려를 무시한 채 개인이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영국 런던에서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서)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정부를 독일 나치나 '빅브라더'(사회를 감시·통제하는 권력) 등에 빗댔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일부 공공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당마저 "백신 패스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경찰 추산 4만4000명이 거리로 나와 백신 의무화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에 항의했다. 극우파 자유당 대표 허버트 키클이 주요 연설자로 나서 등 극우진영이 저변 확대 기회로 삼는 모습이다.

오스트리아는 12일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2월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달 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최루가스나 물대포까지 동원됐다. 지난달 말 2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각국 정부의 최근 방역 규제가 백신 미접종자를 겨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분노한 거리 시위를 촉발시켰고 국가가 공중보건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해설했다.

영국 길대학 사회심리학과 클리퍼드 스토틀 교수는 NYT에 "백신 패스는 '우리' 대 '그들'로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양극화와 분열을 야기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무질서를 초래할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런던의 인권변호사이자 코로나19 관련 법률전문가인 에덤 와그너는 "백신 패스 추진의 위험은 자유시장주의자와 백신 회의론자를 급진화시킨다는 점"이라며 "팬데믹이 터진 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충돌하는 가치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각국 정부는 방역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진은 추가 방역 규제를 하지 않으면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잉글랜드에서만 내년 4월 말까지 사망자가 최대 7만48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이 추정치는 지난해 초 대우행 시작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영국 내 사망자 12만7154명의 절반을 웃도는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접촉 및 모임 규모 축소, 일부 유흥시설 폐쇄가 예상 입원자 수를 5만3000명, 사망자는 7600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발표된 영국의 플랜B는 재택근무 장려, 대중교통 및 소매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권장, 나이트클럽과 기타 대규모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등이다.

영국은 지난 10일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5만8000명을 넘기며 올해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고 부스터를 맞은 사람도 약 40%까지 늘린 상황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코로나19 입원자 규모가 지난 겨울을 웃돌지 않으려면 이달 18일까지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에 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빨간 산타=코카콜라 광고" 동심파괴...

이탈리아의 한 주교가 어린이들에게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CNN과 BBC 방송 등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내 노토 교구의 안토니오 스탈리아노 주교가 최근 성 니콜라오 축일을 맞아 열린 축제에서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코카콜라가 광고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해 어린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주교의 발언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거센 항의에 나섰다. 결국 노토 교구의 언론 담당자인 알레산드로 파올리노 신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파올리노 신부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교를 대신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스탈리아노 주교도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어 "성탄절이 더는 기독교인만의 행사가 아니다"라며 "크리스마스 조명과 기념 쇼핑 사이의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한 것 아니냐"며 소신을 드러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있네’라는 제목의 복음송의 핵심 구절이다. 그렇다. 교회는 교회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어찌 너무도 당연한 일을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란 옛말이 있다. 현재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싶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논하려면 문제 자체에 대한 지적에 앞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 자칫 논쟁거리로 전락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해법의 첫 걸음은 문제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일 것이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참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교회는 현실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끌어안고 반응해야 했다. 이로서 교회는 2천년이란 긴 세월을 걸쳐오는 동안 매우 다양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중세 유럽의 1000년 역사일 것이다. 이 시기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 등 사회 전반의 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여 지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세 유럽 이후에도 기독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한 예로 미국 정부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술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그 당시 도시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술을 가까이 하며 생활이 문란해지고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개신교 성도들은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는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현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찬반의 근거 역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무엇이 기준?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확신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다. 중세교회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지니지 못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신교도들

을 박해하여 313년 이후 초대교회에서 사라졌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성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구교 지도자들이 공유하였던 전통적 교회의 모습과 개혁자들의 주장하였던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세속의 방식과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회의 생명인 복음 중심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대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중세처럼 사회를 향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세속화의 강한 물결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과거 사회에 대한 예언자 역할을 하던 모습

있다.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아예 교회는 이런 소리에 원천적으로 귀를 막은 채 우리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서로 위로하며 지내야 할까?

성경의 역할

교회의 일은 교회 자체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교회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중세교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신

대한단 재력을 확보해도, 또한 사회를 향해 희생적으로 자신을 베풀어도 교회가 교회다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해왔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가 유일한 돌파구라는 점도 확신했다. 교회개혁이 언급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된 듯하다. 그럼에도 정작 교회는 더욱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교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말씀의 중요성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

각하고 행동해야 정상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다. 사람에게 의해 고안된 방법과 목적이 교회의 원래 모습과 다르다면 결코 교회를 개혁시킬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것이어도 단순히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주위에 순수한 목회자들과 성경적 교회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수한 심자가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수용하고 세속적 목적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연재된 글들 통해 시종일관하게 제안한 내용의 핵심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 우매함을 중단하라.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신념을 앞세워 손쉽게 영적 신기루를 거머쥐려 하지 마라. 일단 겸손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 상세하고 분명하게 배우는 일에 몰두하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길은 교회에 대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하는 자세로 배운 바를 실천하라. 학연, 지연, 혈연,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한 응집력을 지닌 공동체 안에 안주하고 있다면 특히 이 사망에 귀를 기울여라.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던 시점을 넘어 과연 얼마나 존속하느냐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아직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형교회들이 있고 골목마다 교회들이 즐비하게 있으니 염려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젊은이들이 줄지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학생이 없어 주일학교교육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2천년의 교회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분명한 교훈이 있다. 모든 교회에는 생명주기가 있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등장한 초대교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하였던 유럽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광범명소로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생명력이 넘치는 성경적 교회로 남아있기 위해 개혁적 마인드를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썽 이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주님의 재림까지 교회는 주어진 사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잡힌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통로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 시작됨을 잊지 말자. 이 글의 독자들을 통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진정 원한다.

covenantcho@yahoo.com (끝)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8)

부제: 교회사가 가르친다.(34) - 교회를 교회되게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나님 뜻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통로가 진정한 교회 모습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로 시작돼

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매우 차갑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적절한 소원과 함께 변화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현대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던 중세교회와 유사해졌다고 판단하고 전폭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커져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교회개혁을 외치는 뉴스 웹사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내부와 목회자들의 비리와 비윤리적인 모습을 집요하게 파헤쳐 거침없이 세상에 드러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상실한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열광하는 자들과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방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었다. 현재 이런 종류의 뉴스에 대한 호불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건과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제법 커져가고

양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신약은 성경이 아닌 사변적 철학의 틀 속에 갇혀,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을 잃은 상태였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인간적 탐욕의 늪에 빠져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개혁자들의 배경이 다르고 강조점이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지녔던 공통적인 의지는 성경을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개혁은 바로 교회의 책임이다. 또한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는 속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시작의 중심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중용을 중시하며 구교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물까지라도 교회를 향한 비판 자체를 묵착하지 않았다. 그들이 개혁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 교회로의 회복을 염원하였기 때문이다.

지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 교회는 온갖 문제와 씨름하여 존속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는 기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일 지라도, 엄청난 수의 성도들을 모으고

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가 스스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한다. 특정 성경구절을 사용할 때 성경의 전체 내용 안에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의 관계에 있는 상대를 무찌르는 도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다. 아예 문제해결을 위한 말씀의 역할을 무시한 채 교회가 세상법정으로 가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즉 교회와 성경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 모습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회란..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속적인 영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생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other cities.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명(Outlook)” (4)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שרי, λειμμα, λοιπος, remnant: 사 6:13, 10:20, 11:10-12; 렘 23:1-4, 31:7-8; 단 1:8-9; 욥 2:28-32)을 통해 이어졌으며, 마침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정점을 이루게 된다.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주도해 나가심을 확증하고 있다. 초대교회 제자들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이어져 다(행 2:1-21; 롬 9:27-29, 11:5),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년왕국의 승리적 교회의 열매들로 거두게 될 것이다(계 12:17, 14:1-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상세계에 임하는 7년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단선적인 사건이 아니라 입체적인 스펙트럼으로 그려주고 있다.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 촛대 위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1

회적 교훈으로 위로와 격려, 소망을 내포하고 있다.

점진적인 승리적 교회 (4-19장)

지상 대 환란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환란을 통과하는 승리적 교회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4생물로 비유되는 어

하게 살피야 할 것은 7년 대 환란의 주도권이 때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주도권으로 그가 보낸 7천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대환란의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상과 음란하게 혼합된 사악한 권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계 15:1).

마침내 큰 음녀로 비유되는 바벨론의 멸망(18장)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 탄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6:2; 19:11-16)과 그가 친히 통치하는 천년왕국(20장), 이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21장) 등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곧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속사 이해하면 펜데믹도 안 두려워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보호와 인도하심 약속돼

13, 20:4). 한 마디로,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한 인류문명의 미래라 할지라도 정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consumm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7년 대환란기(the Great Tribulation)를 거쳐 가는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일 뿐 아니라 피조물의 구속이 완성되어질 그 날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안임을 요한 계시록은 다양한 그림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구속사적 Inclusio(수미쌍관, 首尾雙關)

장)은 대속의 승리와 함께 높이 들림 받고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그의 품되신 교회 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지상 교회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대안이 대 표적으로 묘사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들(2-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에 귀한 도전과 교훈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전개될 대 환란기에 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한 교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책망과 칭찬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 교회를 향한 경계와 경고임과 동시에 성도의 성

린양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둘러선 24장로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승리적 축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4장). 이러한 막간을 통해 보여지는 천상의 장면은 앞으로 이어질 이 세상에 대한 7년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의 승리를 소망하고 동경하도록 그려지고 있다.

7년 대환란(the Great Tribulation)의 모습(6-18장)은 7인을 때의 재앙, 7나팔을 부는 재앙, 7대접을 쏟는 재앙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이고 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며, 심층화되는 특징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여기서 중요

사의 인클루지오로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코로나19 Pandemic의 상황이나 혹은 앞서 열거한 현대 과학문명의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때로 지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여전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약속되어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증되어지기 때문이다.

joandjc@yahoo.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외복(10) 엄마, 사랑애요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학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니 엄마였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였지만 나도 모르게 눈길을 멀리하다가 미니밴이 도착하자 서둘러 타게 됐어요. 엄마한테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은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그날 저녁 아빠가 ‘오늘 잘 보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지요.

자녀와의 만남 막는 일 없어야

부부간은 무촌, 부모자식간은 일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란 둘 사이의 간격이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다가도 돌아서면 전혀 관계없는 무촌이지만 부모자식간은 무얼 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 가장 가까운 일촌의 관계라는 말이겠지요. 자녀들에게 양쪽 부모를 위한 자리가 나란히 있는지, 한쪽 부모가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한쪽 자리가 비게 되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도 허전해할 뿐 아니라 혹시 떠나간 부모를 흉내낸 경우가 있었다면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는 자신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헤어진 배우자의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를 존중하여 자녀와의 만남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들이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할 경우,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처가 혹은 시댁 식구일지라도 자녀들과는 따뜻한 피를 나눈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며 자신은 단지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서로라도 떠나간 부모와의 만남 속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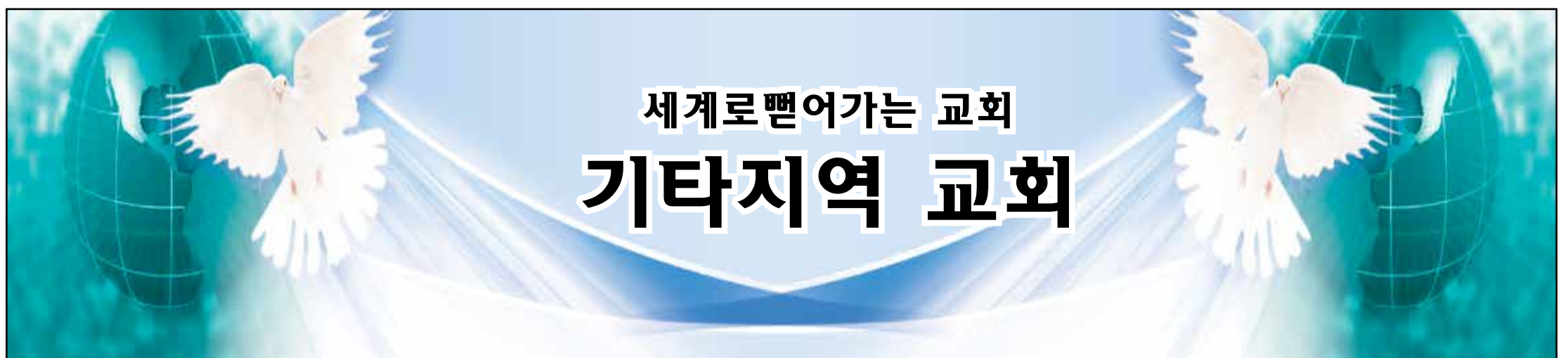
다음은 결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이 서로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어떻게 부모님게 사랑을 표현해야할 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자기 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가, 식탁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해요 라고 가끔이라도 말하는가에 대해 나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 안타까운 경우지만 떠나간 부모가 찾아오지 않아 혹은 동거 부모님이 만남을 금지해서 거의 못 보게 되더라도 두 부모님을 사랑하고자 마음먹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떠나간 엄마나 아빠에 대한 섬섬한 마음이 앞서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힘겹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랑은 따뜻한 기분 이상의 것이며 선택과 결정에 달린 것이 라고 말해주며 마음에 정하면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명함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6) 등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해주며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설득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주위에 너를 아끼며 관심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소에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잘 모셔 달라고 부탁하시는 내용을 나누면서(요 19:26,27)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부모님게 효도하며 사랑을 표현하자고 나누다면 그들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hyojungyoo2@yahoo.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성경공부: 수요일 밤 8:00 디너족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 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월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키온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애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Horsham, PA 1904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erton, MA 01748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49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애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60 Morris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Tel. (253) 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성탄절 축하 광고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연합당회장: 지용수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 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f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